

오디션→추리→컬래버 '슈스케' 後 음악예능 변천사



Mnet '슈퍼스타K'가 이끌어온 음악 예능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경연'으로 시청자들을 만나왔던 음악 예능들이 이제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등에 업고 포맷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9년 방송된 Mnet '슈퍼스타K'는 시즌4까지 전성기를 맞으며 흥행한 뒤 저물었다. '슈퍼스타K'의 영향으로 각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모방하고 발전시킨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다수 만들어냈다.

그 결과물이 바로 SBS 'K팝스타'와 MBC '위대한 탄생', KBS '글로벌 슈퍼아이돌'이다. 'K팝스타'와 '위대한 탄생' 등 몇 시즌에 걸쳐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등 포맷의 변화 시도

시청자들이 찾지 않는 맛집처럼 됐다. 모든 프로그램이 막을 내린 상황이다.

이어 한동안 아이돌 멤버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 Mnet이 가장 먼저 '프로듀스 101'으로 출발했고, 역사적 걸그룹 아이오아이(IOI)를 낳았다. 시즌 2는 더 흥행했다. '프로듀스 101 시즌2' 보이그룹 워너원을 탄생시키며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동시에 잡았다. 이를 본 각 방송사들의 도전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JTBC와 YG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은 '믹스나인'은 데뷔도 못한 채 무산됐고, KBS의 '더 유닛'은 데뷔는 했으나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MBC '헌터나인틴'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이돌그룹 워너나인은 22일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송 후 4월12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어 성과를 점치는 어렵다.

경연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음악 예능의 전부는 아니다. KBS1 전국노래자랑'으로 시작했던 대한민국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2012년 첫 방송된 JTBC '히든싱어'는 모창자와 실제 가수를 대결시키는 포맷으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 가수가 누구인지를 추측해내는 방식에서 재미를 이끈 것. 여기에 신승훈가 조성모를 이긴 모창자 등이 신빙성을 더했다.

또 MBC '복면가왕'에서는 복면을 쓴 가창자의 정체성을 추리하는 과정이 그려졌고 이 포맷으로 수출까지 했다. 미국으로 수출된 '복면가왕'은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에도 퍼져나간다. 프랑스 최대 방송사인 TF1이 이를 방영한다. MBC 콘텐츠 사업국 박원호 국장은 "MBC '복면가왕'은 하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Mnet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도 음치와 능력을 추리하는 포맷으로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2015년 첫 방송된 후 현재 시즌8가 방송되고 있다. 해외 수출도 활발했다. '너목보'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루마니아, 캄보디아,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9개국에 포맷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 4년간 출시된 포맷 중 가장 잘 팔린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고 있다.

트렌드는 또 다시 변화하는 중이다. 한동안 '추리'가 인기를 얻었다면 이제는 '배시업'이다.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 가미된 음악 예능이 방송가에 속속 등장하는 중이다. KBS2 '뮤직서클쇼 더 히트'는 정상급 뮤지션들의 히트곡을 무작위로 섞어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가수들이 등장해 자신의 히트곡에 대해 대화하고, 또 이를 전혀 다른 장르의 곡과 컬래버레이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새 히트곡을 만든다.

KBS는 또 5일부터 4부작 음악 예능인 '입맞춤'을 방송한다. 발라드와 록, 국악, 랩, 뮤지컬 등 장르를 불문한 9인의 가수가 파트너를 찾아 듀엣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컬래버레이션 포맷을 발전시켰다. 음악예능의 변천사가 흥미롭다.

4%로 중영! 드라마틱 시네마 '트랩'이 남긴 것

OCN 드라마틱 시네마 '트랩' (연출 박신우, 극본 남상욱) 치밀한 사냥이 최종회 시청률 4.0%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뜨겁게 막을 내렸다.

지난 3일 방송된 OCN 드라마틱 시네마 '트랩' 최종회 '이종(異種)'이 케이블, IPTV, 위성 등 통합한 유료플랫폼 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4.0%, 최고 4.9%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OCN 타깃인 남녀 25-49 시청률에서도 평균 3.7%, 최고 4.9%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유료플랫폼 전국기준/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 고동국(성동일)은 강우현(이서진)을 사냥했다. 정신병원에 함께 갇혀있던 김비서(이주빈)

가 녹음한 우현의 목소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 녹음기에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거약을 제압한 직후 무한 정지인"이 되기 위해 사냥꾼들을 이용 중인 우현의 본색이 담겨있었다. 동국은 이를 사냥꾼들에게 알리고, 우현을 다시 사냥감으로 만들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된 사냥꾼들 사이에서 우현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동료 형사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탈출한 동국이 우현과 대립했다.

윤서영(임화영)까지 살해한 우현은 도련님(이서훈)을 인질로 붙잡고 "이러니만한 건 제가 고형사님의 아들의 복수를 해줄 수 있다"는 말로 동국의 살인을 부추기며 그를 유혹했다. 하지만 동국은 우현의 몸에 주사기를 꽂아 그를 제압했다. 약물에 의해 흥분하게 모습이 변한 우현은 종적을 감춘 채 복수를 다짐했

고, 동국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종간의 전쟁을 암시하며 끝을 맺었다. 이에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짜릿한 재미를 선사했던 '트랩'이 남긴 의미 있는 성과를 되짚어봤다.

이서진X성동일X임화영, 배우들의 성공적 변신

본색을 철저하게 숨긴 소시오패스 강우현으로 분해 한층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OCN 장르물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서진,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형사 고동국으로 분한 성동일 역시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을 펼치며 압도적 존재감을 뽐냈다. 또한, 임화영은 프로파일러 윤서영의 걸크러쉬와 사랑스러움을 매력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 세 배우의 완벽한 연기 호흡은 시청자들을 '트랩'의 뒷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스틸러 배우들의 활약도 빛을 발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존재감을 떨쳤던 윤경호, 조달환과 성동일의 조력자가 되어준 형사 김광규, 장성범, 그리고 소름을 유발한 사냥꾼을 오룡, 상혁, 변희봉, 이시훈 등 다양한 얼굴을 가진 연기와 배우들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격적인 소재가 정교한 드라마적 장치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펼쳐졌다. 또한,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같지만 매회 다른 영화적 플롯으로 7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 영화와 드라마의 장르적 결합을 완벽하게 이뤄냈다.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드라마틱 시네마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기본 좋은 출발을 일린 것.

참신한 반전으로 탄생한 유일 무이 추적 스릴러

피해자라고 믿었던 인물이 가해자였음이 밝혀지고, 학습된 표정 뒤에 가려진 악마의 Imm가 나타나는 등 매순간이 반전의 연속이었던 '트랩', 우현, 동국, 서영의 대사 하나 하나가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복선이었으며, 신와의 경계에 서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졌다.

특히 섬뜩한 표정과 함께 우현의 반전이 드러나는 과정은 참신한 반전을 선사했다.

극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악역이라는 과격적인 설정은 한국 드라마에선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 더불어 극의 시작을 알리고 중심이 되는 사건마저 악역에 의해 연출됐다는 점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에 더욱 놀라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전개는 OCN 웹메이드 장르물의 체보를 이어나갈과 동시에 '트랩'이라는 유일무이한 하드보일드 추적 스릴러를 탄생시켰다.

한편, 1~7화 방송을 우현의 사건 위주로 재구성, 한 편의 영화로 다시 즐길 수 있는 '트랩: 디렉터스 컷'이 오는 10일 일요일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이다.

'극한직업', 1600만 돌파...매출 역대 1위



영화 '극한직업' (감독 이병헌·제작 어버웃필름)이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넘어섰다. 매출액은 '명량'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지난 3일 하루 8만 2817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일일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은 무려 1602만 9820명을 기록, 1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 1월 23일 개봉 이후 40일 만

의 기록이다.

16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가 탄생한 건 한국영화 역대 최고 흥행 영화인 '명량' (1761만 3682명, 2014) 이후 최초다.

그러나 매출액 면에서는 '극한직업'이 '명량'을 넘어 1위다. 그간 영화관람료 인상 등으로 관객 1명당 매출액이 오를 결과다. 지난 3일까지 '극한직업'이 기록한 누적 매출액은 1376억 9673만 2356원에 이른다. '명량'의 1367억 4838만 9910원을 제쳤다.

'극한직업'은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수사를 위해 위장 침투한 담집

이 대박이 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코믹 수사극이다. 배우 류승룡 이하늬, 진진규, 이동휘, 공명, 신하균, 오정세 등이 출연했다. 순도 높은 코미디와 앙상블 캐스팅이 어우러져 2019년 초 극장가에 코미디 바람을 일으켰다.

'명량'의 1761만 관객 돌파 기록을 깨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지만 '극한직업'은 연이은 신작들의 개봉에도 꾸준히 박스오피스 4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관객 수 및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 박스오피스가 어디에 이를지 주목된다.

'드라마틱 시네마' 프로젝트의 첫 타자

'트랩'은 장르물의 명가 OCN이 영화 제작진과 콜라보레이션한 '드라마틱 시네마 프로젝트'의 첫 타자. 영화감독인 박신우 감독이 연출을, 드라마작가인 남상욱 작가가 극본을, 또한 영화와 드라마를 모두 아우르는 이재규 감독이 총괄 프로듀싱을 담당해 OCN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인간 사냥이라는 그야말로 영화 같이 파

오늘의 순세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음력 1월 29일)

<p>▶ 쥐 취미를 살려서 본업으로 삼을 재주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1, 5, 7월생 혼자서 하는 일 엄청나게 힘들고 쓰러질 것 같구나. 가, 바, 오 성씨 북,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 버리고 도움 청하라. 파란색이 행운.</p>	<p>▶ 돼지 재주 많고 능력도 있지만 애정에는 자신이 없다. 3, 8, 10월생 많은 사람에게 존경은 받을 수 있다 해도 사랑만큼은 용기 있게 마음대로 안 된다. 2, 9, 12월생 하는 일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고민하다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통이 따를 수.</p>	<p>▶ 원숭이 무슨 일든 적당히 처리하는 습관으로는 신리받을 수 없다. 3, 5, 6, 8월생은 남이 한다고 덩달아서 한다면 배반 후회할 일 생길 듯.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좋은 결과가 없다 해도 또 내일이 있음을 알라. 희망을 갖자. 용기가 필요할 때.</p>
<p>▶ 새끼 속이 상할 때 답답하다러도 말하지 말고 참는 것이 상책이다. 잘못이 없어도 자신에게 잘못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 1, 7, 11월생 애정과 인덕이 없다고 한탄 말라.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화목의 날이 올 것이다.</p>	<p>▶ 돼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푸는 사람의 고마움도 알아주는 아량 가져라. 자유결혼한 자는 지금쯤은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을 직접도록 후회할 수 있다. 부부간 별거를 마음편하게 느낄 수 있으나 자제하고, 부부 협력 하에 길을 찾으라.</p>	<p>▶ 닭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전으로 인격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만큼 돈 때문에 실의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가져라.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다. 2, 9, 11월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시 시작한다면 서서히 운이 열릴 듯.</p>
<p>▶ 호랑이 때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싫증 느끼고 전업을 하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추진하려면 일 서두르지 않는다면 행운이 올 듯. 3, 7, 9월생 가, 바, 오 성씨 변동은 금물.</p>	<p>▶ 양 무슨 일을 하든지 때가 있는 법이다. 분수에 맞지 않게 허황된 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파멸이다. 바, 자, 흥 성씨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분별없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면 결국은 자신의 입장만 난처해질 듯.</p>	<p>▶ 개 혼자서 아무리 난 척을 한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가, 구, 자, 오 성씨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라. 2, 8, 12월생 부부 간에 경쟁권은 여자 쪽으로 힘이 매사에 좋을 듯.</p>
<p>▶ 토끼 기분이 언짢다고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성공을 다스리는 자는 천지를 지배하는 통솔자보다 낫다. 모든 것을 인내함이 좋다. 사, 자, 흥 성씨 일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건강에도 신경써야 한다.</p>	<p>▶ 양 여성은 친구를 집에 자주 들이다 보면 믿었던 그 친구로 인해 가장 불화가 우려되니 조심함이 좋을 듯. 4, 9, 10월생 보이지 않는 눈물 소리 없는 눈물 그 누가 알아주랴. 동, 남쪽 사람과 의논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p>	<p>▶ 돼지 남을 미워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욱 더 쌓이게 마련이다. 왜 미워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라. 사귀고 싶어도 사귀지 못하는 것이 남녀 간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구, 사, 오 성씨 사랑하는 사람 놓치지 마라.</p>